

人文論叢

80권 3호

2023년 8월

서평

[www.kci.go.kr](http://www.kci.go.kr)



# 동맹에서 동반자로, 적에서 동지로

윤대영\*

[서평] 도미엔(2022),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84쪽

## 1. 베트남전쟁과 나

베트남전쟁의 개전과 확전의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베트남전쟁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외국군이 개입하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선이 확장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1964년 8월에 통킹만(Gulf of Tonkin) 사건이 일어났고, 1965년에는 미국,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지상군을 파병했다. 이후 8년간의 전쟁 끝에 1973년 1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그해 3월 말까지 미군이 전부 철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에 베트남공화국(Việt Nam Cộng Hòa, 남베트남 정부)의 수도 사이공(Sài Gòn)의 함락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Việt Nam Dân Chủ Cộng Hòa, 북베트남 정부)이 무력으로 ‘남진’ 통일을 달성했고, 1976년 7월 2일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이 선포되었다.

1976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는 베트남전쟁에 대해 단편적인 경험이나 일화만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1905년에 나라가 이미 망해 버린 줄도 몰랐던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를 읽으며 베트남의 상황을 이해했던 것처럼, 나도 초중고 시절에 패망한 남베트남의 역사를 계속 배워야만 했다. 그리고 김해 출신의 외숙은 서울 신촌의 유학 생활이 너무

나 힘겨워 해병으로 입대하여 ‘월남’에서 등록금이나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조부께서 장손의 ‘월남’ 파병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며, 결국 외숙의 ‘월남’ 파병은 좌절되었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새벽에 귀국하여 인천 택시를 잡아탔는데, 이 택시의 기사님은 1966년에 청룡부대 제2진으로 파병을 떠나서 2년 동안 복무했다고 한다. 신의주 출생으로 한국전쟁 때 고아가 되어 피난길에 올랐던 그분은 선감도(仙甘島)의 선감학원(仙甘學園)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후 부랑자 생활을 전전하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다. 어차피 귀국해도 딱히 돌아갈 곳이 없었던 기사님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월남’ 파병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셨다. 요즘도 지하철로 이동하다 보면, 군복을 착용하고 선글라스를 낀 해병대 출신의 노병들을 종종 마주치게 된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는 ‘월남전’의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평자는 우연한 기회에 시 한 편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시는 바로 베트남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문학』 1966년 10월호에 ‘베트남 인민과 함께’라는 특집에 실렸던 이찬(李燦, 1910~1974)의 「하이퐁의 밤」(p. 54, 이하 인용면수만 기재)이란 시 한 편이다. 1964년 이래 미국의 하이퐁(Hải Phòng) 폭격이 언론에 의해 한국 사회에도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 북한의 시인 이찬은 “류달리 머리 흰 녀인 한분” “어머니”를 통해 “여기 때아닌 뇌성벽력 하늘땅 흔드는 하이퐁의 밤”을 묘사하고 있었다. 과연, 하이퐁은 한반도와 어떤 인연으로 “그르름내 가지끓은” 밤의 항구로 1960년대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 이러한 개인적인 의문에 대해, 도미엔의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11)은 1960년대 북한 사회에 등장하는 북베트남의 현실을 추적하고 전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 2. 전후 세대 어떤 하노이 학자가 본 베트남전쟁과 북한

이 책은 저자(Do Thanh Thao Mien, 하노이 출신, 도미엔)의 박사학위논문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Korea-Vietnam Relations during the Vietnam War, 이화여자대학교, 2019, 지도교수: 정병준)를 수정하고 보완한 작업으로 보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양과 하노이(Hà Nội)로 대변되는 북한과 북베트남이 성립한 이후 양국 관계의 형성 과정, 베트남전쟁 시기의 양국 관계, 전쟁 이후의 양국 관계 등에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붉은 혈맹’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양국 관계의 배경과 실상을 재검토한다.

베트남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와 남베트남의 ‘패배’로 귀결되었지만, 전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쟁 당시와 이후에 등장한 관련 연구는 전쟁의 성격, 파병의 배경을 둘러싼 한국의 안보와 한미 관계, 경제적 실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한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민간인 학살 문제 때문에 학계와 시민 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현재까지 대부분의 베트남전쟁 연구는 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나 한미 관계를 주요 화두로 제시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군의 참전과 그 폐단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sup>1</sup> 아울러, 저자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현재까지 베트남전쟁 관련 연구들은 주로 미국의 전쟁 개입 배경과 한국의 파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8-9, 91).

저자는 우선 베트남전쟁의 전체적 전개 과정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는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가 형성되는 과

1 윤대영(2021), 「베트남전쟁과 인천의 시정(市政): ‘파월 장병 및 가족 돕기 운동’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35호, p. 142.

정, 양국 관계가 강화되는 양상,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이완되는 국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연구의 한계는 ① 북한과 북베트남의 외교 관계 수립과 전개, ② 북한의 베트남전쟁 지원, ③ 베트남전쟁전쟁이 남북한 관계에 미친 영향과 여기에서 비롯된 북한과 베트남의 연관성 등과 같은 측면을 전혀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과 북한 자료의 부재에서 비롯된 한계로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한다(8-9, 20-21).

이 책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추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고 의문점을 밝혀내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시기별 베트남전쟁 상황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정세의 변동을 고려하며 전쟁의 전개 과정과 북한 및 북베트남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베트남전쟁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전쟁 상황과 북한 및 북베트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했다. 즉 1950년대, 1960년대 초중반, 1960년대 말~1970년대 전반, 그리고 1975년으로 시기를 나누어 양국 관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총 6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은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기존 연구 검토, 연구 방법과 연구 자료, 책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두었다. 기존 연구 검토는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에 대한 연구,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 대한 연구, 베트남전쟁이 남북한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베트남전쟁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쟁 시기를 단계별로 간략히 소개했다.

「제2장 북한·북베트남의 관계 형성(1950~1959)」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연대의식, 북한과 북베트남의 문화, 경제, 과학·기술 교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 외교 관계의 시작과 형성 배

경을 소개한다. 이 시기에는 관계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공동 연대 관계가 수립되었는데, 이러한 연대는 중국을 교두보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식, 반제국주의 의식, 그리고 제네바 회담 전후 반미 공동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동맹 관계였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양국 관계에 따라 북한과 북베트남의 문화, 경제, 과학 및 기술 교류 등의 양상이 1955년의 상호 파견 예술단, 1957년의 문화교류 협정, 1958년의 문화대표단 상호 방문, '상호 상품 교환 협정', 과학 기술 합작 등으로 나타났다.

「제3장 북한·북베트남의 연대성 확보(1960~1967)」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경제 친선 경쟁 운동', 베트남의 게릴라전 개시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전환, 베트남전 확대 및 북한의 국내 정치와 베트남전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장에서는 196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미국, 남한, 북한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1960년대는 전쟁이 확산된 시기이자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가 진전된 시기였다. 양국의 관계는 반미 공동의식을 통해 서로의 연결고리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의 '경제 친선 경쟁 운동'이 진행되었고, 북한은 물자를 지원하며 공군 및 심리전 전문가를 파견했다. 그리고 북한은 베트남전쟁의 상황에 따라 대남혁명노선을 전환하며 김일성의 권력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활용하게 되었다.

「제4장 북한·북베트남의 관계 이완(1968~1974)」은 1968년 한반도 안보 위기와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동요, 북한의 북베트남 경제지원 감소, 통일 방식에 대한 상호 견해차, 북한·북베트남 관계에서의 중국 변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4장에서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전반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가 느슨해지는 과정을 다룬다. 1960년대 말에 베트남전쟁의 상황이 바뀌면서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에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베트남 평화 협정 체결 과정에서 베트남의 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다.

「제5장 베트남전쟁 종결(1975)과 북한」은 베트남의 통일과 북한 정부

의 양면적 반응, 북한의 통일정책 전환, 북한의 권력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5장에서는 1975년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통일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베트남의 통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게 영향을 주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 정부는 자국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정책을 ‘평화상태 유지’에서 ‘긴장상태 유지’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 평화 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북한 위협설을 강조하고 긴장상태를 조성하면서 후계 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제6장 결론」은 공동의 적 미국과 전쟁 이후 “생사를 같이한” 형제 국가, 오늘날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베트남전쟁의 유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6장에서는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연구의 의미를 제시한다. 또 베트남전쟁 시기 양국 관계의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1975년 베트남전쟁 종결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과 북한 관계의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 3. 현지 자료의 활용과 베트남전쟁에서 ‘실존하는 베트남’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돋보이는 점은 역사학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론에 충실한 데에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1차 자료는 한국어(북한 자료 포함),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문 자료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김일성저작집』, 『김정일 선집』,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등을 포함한다. 영문 자료로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China-North Korea Relations (Document Collections)*, *Demise of Détente in Korea, 1973-1975 (Document Collections)*, *Inter-Korean Relations (Document Collections)*,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Document Reader)*, *The Two Koreas and the Vietnam War (Document*

Collections) 등을 들 수 있다.

저자는 공식적으로 간행된 자료에만 의존한 기존 연구들의 논지와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7) 한국, 북한, 미국 등지의 자료 이외에도 동구권 외교문서 자료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베트남 현지의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 내무부에 직속된 국가문서보관국(Cục Văn Thư và Lưu Trữ Nhà Nước) 산하의 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1, 2, 3, 4)들은 2001년부터 자료 열람을 허용했는데, 현지에서는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베트남전쟁에 관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고,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도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3, 25).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자가 주로 활용한 자료는 제2 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와 제3 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에 보관되어 있다.

이 두 센터에 대한 저자의 소개는 향후 한국의 베트남전쟁 관련 연구를 위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호찌민시(Thành Phố Hồ Chí Minh)에 있는 제2 자료센터는 베트남공화국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편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 정부 및 한국 정부의 협력과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관련 문서들을 보관 중이다. 베트남전쟁 시기에 한국의 파병을 비난한 북한과 북베트남 측은 파병 과정에 대해 적지 않게 보도했는데, 제2 자료센터의 자료를 통해 북한과 북베트남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3-24).

다음으로 이 연구가 많이 활용한 자료들은 하노이의 제3 자료센터에 있다. 이 센터에 소장된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베트남 북부에서 중부의 광빈(Quảng Bình) 지역까지이고, 시간적 범위는 베트남민주공화국(1945~1975) 시기부터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까지 이른다. 그래서 제3 센터는 1950~1970년대 북베트남 정부와 북한 정부의 관계 및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센터라고 할 수 있다.

제3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북베트남 정부와 북한 정부의 관계 및 협력

에 대한 자료들은 ① ‘수상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 ② ‘국회’(Quốc Hội) 문서군, ③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 ④ ‘국가계획위원회’(Ủy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 문서군 등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북베트남을 지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1965년에 작성된 문서들이 제일 많은데, 특히 그중에는 1965년 북한·북베트남 간의 경제 지원에 대한 협정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한다고 한다.

아울러, 베트남국방부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Bộ Quốc phòng) 소장 자료 역시 활용되었는데, 북한군과 중공군이 한국전쟁으로 얻은 경험들을 베트남 군인들에게 교육한 자료, 특히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전술과 중공군의 전투 방식 교육 자료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베트남전에 참전한 북한 공군을 관리하던 반 띠엔 중(Văn Tiến Dũng, 1917~2002) 장군, 당시 베트남 인민군대 총참모총장의 기록을 통해 북한 지원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시기에 발행된 신문 자료들의 활용도 주목할 만하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베트남(1945~1975)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1976~현재)이 발행한 신문들 중에 베트남전쟁 시기를 대표하는 『인민신문』(『*Báo Nhân Dân*』,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소장),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 베트남군대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 소장) 등을 통해 베트남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대응과 인식, 북베트남과 북한의 교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하 정리] 이러한 베트남 측 자료 중에서도 <그림>, <표>, <부록> 등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1955년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는 하노이 시민들(<그림 2-2>), 1955년 하노이에서 발행된 북한 예술단 공연에 대한 책(<그림 2-3>), 1955년에 하노이의 문예출판사가 번역한 『조선의 음악』(*Nhạc Triều Tiên*)이 소개한 아리랑 악보(<그림 2-4>), 1955년에 하노이의 인민군대출판사가 간행한 『조선의 전투 영웅 이야기』(*Chuyện Anh Hùng Chiến Đấu Triều Tiên*)(<그림 2-5>), 1963년 베트남 인민의 환영을 받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 박금철(<그림 3-1>), 1965~1973년간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 금액(베트남어 원문)(〈그림 4-1〉), 1965~1968년 북한의 무상지원 금액(〈표 3-1〉), 1965~1967년 북한의 북베트남 설비·물자·기술 원조(〈부록 1〉), 1969~1973년 북한의 무상지원 금액(〈표 4-1〉), 베트남 박장(Bác Giang)에 있는 북한 공군 전사자의 묘소(〈그림 3-3〉) 등이다(75-77, 98, 163, 168, 190, 203-204). 이렇게 베트남 현지의 제2, 제3 자료센터의 자료와 언론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이 연구는 미국이나 한국 혹은 북한만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베트남이 실존하는’ 베트남전쟁 연구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이 연구의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관계사가 아니라 관계사에서 지역사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과 북베트남(혹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던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고려하면서 중국과 북베트남, 중국과 북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양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및 북베트남과 소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 관계에 영향을 받던 양국 정부의 입장이 베트남전쟁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고 있다.

#### 4. ‘상불개’(想不開)의 한국학과 베트남학

다음으로 이 책의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전반적인 한국 학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한국학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연구하여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학술 시스템이 정착했으면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이 수정, 보완된 것인데, 박사논문 심사 당시의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4명 중에서 한국현대사 전공자는 3인이지만, 베트남학을 전공한 심사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저자는 『쟁점 한국사(현대편)』(박태균 외, 창비, 2017)의 내용을 근거로 “베트남전쟁의 본질은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남베트남 사람들의 저항이었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소개하는데(29), 사실

이 주장은 최병욱의 연구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다.<sup>2</sup> 그리고 이 연구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를 주변 지역, 특히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며 진행된 성과임을 고려할 때, 중국학 전공자도 심사위원에 없었던 점이 아쉽다.

두 번째는 한국 측의 아카이브 자료 활용 문제다. 이상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베트남 현지의 아카이브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 측의 아카이브도 국가기록원이나 외교사료관을 통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에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초기 외교 관계 수립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아카이브의 내용은 1958년 말 김일성의 하노이 방문, 1960년 초 FAO 제4차 미곡경제자문분과위원회(사이공) 당시의 북한과 북베트남의 동향, 1965년 제2차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당시 한국의 베트남 참전 문제에 대한 북한의 활동과 북한 및 북베트남의 입장, 1968년 4월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제24차 총회 당시 북한 및 북베트남의 가입 문제와 당시 북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의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한 논평, 1968년 4~5월 UN(유엔) 국제인권회의 당시 소련 대표의 북한 및 북베트남 지지, 1969년 9월 IOC(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제6차 총회에서 루마니아 대표의 북한 및 북베트남의 IOC 가입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하노이 출신 한국사 연구자가 베트남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언급하고 싶다. 통일 베트남의 1980년 헌법 서문은 1975년의 남부 패배자들을 프랑스 및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충복 노릇을 한 도당”(bè lữ tay sai)으로 규정하면서 남북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재교육해야 할 ‘반동(反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86년 12월의 도이 머이(Đổi Mới) 선언 이후에 1992년의 신헌법에서는 1975년의 남베트남 패배자들을 모욕하는 표

2 박태균 외(2017), 『쟁점 한국사(현대편)』, 창비, p. 189; 최병욱(2003),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의 실제: 지역성과 관련하여」, 『베트남 전쟁 연구 총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333-373.

현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저자는 남베트남 정권의 출발점이었던 베트남국(Quốc Gia Việt Nam, 1949~1955)에 대해 프랑스의 “괴뢰국”이었다고 소개한다(28). 평자가 생각하기에, “괴뢰국”이라는 표현은 과도해 보인다.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이자 프랑스 연방(Union française)의 협력 국가(État associé)로 건설된 베트남국의 초대 지도자 바오 다이(Báo Đại)는 이 나라의 ‘자치’ 정도, ‘독립’ 보장, ‘임시 정부 구성’, 직할 식민지였던 코친차이나의 법적 문제 등을 고등관무관(haut-commissaire) 볼라에르(Émile Bollaert)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측으로부터 베트남의 지도자가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던가? 그리고 바오 다이는 군주국이 부활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꾸옥 쩡영(Quốc Trưởng, 國長)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은 남베트남을 “나약한 남부정권”으로 파악하고 있었고(28), 남베트남에 대한 북베트남과 통일 베트남의 역사 서술도 비슷한 관점에서 외세에 굴종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지만, 베트남국에서 베트남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남베트남의 역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 미완(未完)의 작업들, 그리고

저자에 의하면, “198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냉랭함을 유지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와 중국·베트남 관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중략] 또 베트남과 한국이 이념의 장벽에 갇혀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북한은 이를 반대했다. 베트남은 분단된 남북한 모두와 수교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정치적·외교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한다(264-265). 그래서 이 책에서 베트남의 통일 이후부터 1980년대를 거쳐 한-베 수교 이전까지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소략한 편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후의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양국 교류와 협력 관계가 유지된 측면이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1990년 12월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베트남군 창설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레 득 아인(Lê Đức Anh) 국방 장관에게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제적으로는 1987년 12월 북한과 베트남 간 1988년도 상품 유통 및 지불 의정서 조인, 1991년 2월 북한의 식량난 타개를 위한 베트남산 사료용 쌀 수입, 1991년 5월 북한의 대베트남 차관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89년 1월 당시에도 여전히 베트남 유학생이 김일성대학으로 파견되고 있었다.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교류가 이어졌는데, 1989년 10월 평양 국제 영화관에서는 북한, 베트남 등의 8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주의 무용 예술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대 활동은 통일 베트남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1983년 3월 부다페스트에서 바르샤바 회원국으로서 북한과 베트남의 활동, 1983년 12월 로마에서 FAO(UN식량농업기구) 제22차 총회의 아주 그룹 회의에서 북한과 베트남의 활동, 1984년 11-12월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제8차 국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베트남 등 8개 사회주의 국가의 차기 한국 개회 반대, 1990년 2월 북한과 베트남의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반제(反帝) 투쟁 결의, 1991년 3월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 훈련에 대한 베트남의 비난, 1991년 8월 북한과 베트남 등 아시아권 공산국들의 미국과 소련 간에 이루어진 전략 무기 감축 협정(START) 조인 환영 등이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기 이전에 북한이 북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항상 실리를 추구해 왔는데, 이러한 모습은 통일 베트남의 등장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당시 이 ‘혈맹’을 비난했던 북한은 1980년 8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경련 부총리를 통해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요구하는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도 김영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은 아세

안의 베트남군 캄보디아 철수 요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후 1984년 1월 당시 민주캄푸치아의 세 그룹 중에 반(反)베트남 성향의 크메르루즈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북한도 크메르루즈의 입장을 지원했다.

아울러, 1992년 12월에 베트남이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는데, 양국의 수교 이후에 진행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통일 이후 꾸준히 등장한 ‘한국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 종결 직후부터 북한과 통일 베트남의 관계에는 한국 문제가 개입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77~1979년 당시 베트남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 공관원 3명(주베트남공화국 공사 이대용 등)을 위한 한국-베트남-북한 간의 3자 회담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쟁의 양금을 씻고 관계 정상화를 원하던 베트남은 1980년대에 북한을 지지하면서도 비정치적인 분야, 특히 경제 교류를 원한다고 한국 정부에 꾸준히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서 1991년 2월 당시 한국의 체육청소년부는 베트남과도 체육 교류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전쟁 당시 현지에서 실종된 한국군 장병들의 북한 체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발(發)’ 북한-북베트남 관계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을 통한 베트남 쌀의 북한 유입으로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 관계가 이어졌다. 1992년 7월에 베트남의 쌀이 한국 기업 대우를 통해 북한으로 중계 수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1993년에도 북한은 한국의 상사들을 통해 베트남산 쌀을 공급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의 이러한 거래는 1994년 말부터 베트남의 쌀과 북한의 무기(총 부품과 탄약, 잠수함 등)가 바터 무역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3자 관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을 경유한 북한 사람들의 탈북과 재입국, 위조 달러 유통 등으로도 확대되었다.

저자는 21세기 북한과 베트남 관계의 특징을 “서로가 적당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윈윈(win-win)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266).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의 개혁, 개방 사례가 북한의 중요한 롤 모델로 떠올랐고, 베트남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양국의 관계에서 베트남의 미래 역할 가능성을 제시한 이 연구의 안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띠이 썬(Tây Sơn) 왕조(西山朝, 1778~1802)와 응우옌(Nguyễn) 왕조(阮朝, 1802~1945)는 ‘북진’(北進) 통일을 달성했다. 프랑스랭 인도차이나 시기를 거친 이후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 한반도는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4월 30일에 호찌민(Hồ Chí Minh)과 미국 OSS 대원의 우호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은 10세기에 등장한 다이비엣(Đại Việt, 大越)의 ‘남진’(南進) 이후에 다시 한번 북베트남의 제2의 ‘남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의 역사는 비로소 서로를 ‘치열하게’ 마주 볼 수 있었다.

평자는 저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부탁하고 싶다.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를 연구한 저자는 베트남을 통해 한반도의 현대사를 재검토해 왔다. 이제는 이 경험을 발전시켜 한반도사를 통해 베트남사를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베트남의 어떤 학자는 “한반도가 베트남의 통일 사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평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반도의 연기(緣起)와 시절 인연이 실체가 불분명한 이기적인 ‘혈맹’보다는 동반자로,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함께 지향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기록물.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외교사료관 기록물. (<https://diplomaticarchives.mofa.go.kr/new/main/>)

박태균 외(2017), 『쟁점 한국사(현대편)』, 창비.

윤대영(2021), 「베트남전쟁과 인천의 시정(市政): ‘과월 장병 및 가족 돕기 운동’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35호.

이찬(1966), 「하이퐁의 밤」, 『조선문학』, 10월호(‘베트남 인민과 함께’).

최병욱(2003),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의 실체: 지역성과 관련하여」, 『베트남 전쟁 연구 총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